

안 슈반크마이에르의 <쾌락의 공범자들>에 나타난 에로티즘

박재운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안 슈반크마이에르의 <쾌락의 공범자들>에 나타난 에로티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쾌락의 공범자들>은 안 슈반크마이에르가 1996년에 발표한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여섯 명의 남녀의 비밀스럽고 도착적인 성적 쾌락의 탐닉에 대해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작가 자신은 이 작품을 '쾌락원칙' 과 '에로티즘'을 통해 표현된 자유와 해방에 관한 영화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쾌락의 공범자들>을 중심으로 작품 안에 나타난 성적코드들을 에로티즘 과 결부 시켜 분석하고 슈반크마이에르가 나타내고자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안 슈반크마이에르, 쾌락의 공범자들, 에로티즘, 바타이유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안 슈반크마이에르(Jan Svankmajer 1934~)1) 의 <쾌락의 공범자들(1996)>을 중심으로 작품 안에 나타난 에로티즘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슈반크마이에르의 3번째 장편영화로, <앨리스(1987)>, <파우스트(1994)>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라이브액션과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픽셀레이션2)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영

화이다. <쾌락의 공범자들>은 “성의향연(Sexual feast)”의 영화3)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性’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여섯 명의 남녀 캐릭터, 그들의 은밀하고 도착적인 성적 판타지의 추구, 그리고 이런 비밀스런 성적 판타지들 속에서 이들 여섯 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다소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이다. 오노 고세이4)

1) 체코 프라하 출신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초현실주의 애니메이션 작가이다. 1964년의 영화경력을 시작으로 20편이 넘는 단편 애니메이션과 5편의 장편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2)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작들을 촬영기법으로, 한 프레임씩 끊어서 촬영하거나 연속적인 필름에서 프레임들을 잘라내서 만드는 기법. 넬슨신, 한창완, 『애니메이션 용어사전』, 한울, 2002, p22.

3) Jackson, Wendy, “The Surrealist Conspirator: An Interview With Jan Svankmajer”, Animation World Magazine, Issue 2.3, 1997.

4)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평론가이며 작가. 일본에서 해외 만

와의 인터뷰에서 슈반크마이에르 자신은 <쾌락의 공범자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쾌락의 공범자들>은 원래 '쾌락원칙' 이라는 제목이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쾌락원칙을 현실에 적용한 작품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원칙으로부터 태어나 점차 '현실원칙'을 밟아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늘 쾌락원칙을 우리의 몸에서 지니고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쾌락원칙은 에로티즘과 관련이 있다. 쾌락원칙이란 자유와 해방이며 '에로티즘=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쾌락의 공범자들>은 자유에 관한 영화이다.⁵⁾

위의 글에서 슈반크마이에르는 <쾌락의 공범자들>이 '쾌락원칙'과 '에로티즘'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영화가 실제로 해방에 대한 그리고 자유획득에 대한 영화라고 이야기 한다.⁶⁾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이란 인간이 긴장이 축적된 불쾌(不快)의 상태를 벗어나 자극과 긴장이 해소된 쾌(快)의 상태를 유지 하려는 정신적 경향을 이야기 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쾌락은 긴장의 방출과정에서 발생한다. 성행위에 따른 강렬한 쾌감 또한 성적 흥분과 긴장의 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프로이트는 모든 생명체는 불안과 고통,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무 자극(무기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죽음본능(Thanatos)을 지닌다고 주장한다.⁷⁾ 고통이 없는 원상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본능의 사유는 성과 죽음을 불가분의 관계로 바라본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 1962)⁸⁾의 '에로티즘'은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불연속적 존재이며 필사적으로 연속성(고립감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망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간절히 에로티즘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도 에로티즘을 통해 '존재의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에로티즘의 인식에는 반드시 위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쾌락의 공범자들>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은 도착적이고 비정상적인 '위반의 행동'을 통해 에로티즘의 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타이유의 이론 안에서 에로티즘의 절정은 종종 죽음, 열반, 해탈이나 초월의 개념과 동일시된다.⁹⁾

본 논문에서는 <쾌락의 공범자들>안에 나타난 성적코드들을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슈반크마이에르가 나타내고자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슈반크마이에르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광기와 정신의 어두운 측면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연구해온 작가이며 <쾌락의 공범자들>에서는 특히 인간의 성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어둠의 에로티즘이라고 일컬어진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이 작품의 주제와

화의 번역, 연구, 소개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로 아트 에니메이션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5) 오노 고세이, 『상상에 숨을 불어넣다』, 김준양역, 나비장, 2008, p.150.
6) Jackson, Wendy, "The Surrealist Conspirator: An Interview With Jan Svankmajer", Animation World Magazine, Issue 2.3, 1997.
7) 이창제,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4, pp. 280~285.

8) 1897년 프랑스 퀴드돔에서 태어나 파리 샤프트에서 고문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 국립도서관의 사서 겸 중세 전문가로 일하면서, 소설, 문이론, 철학 등 다방면의 글쓰기를 통해 죽음과 에로티즘, 금기와 위반의 문제를 극한까지 탐구했다. 20세기의 사유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세기적 지성으로 평가 받고 있다

9)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살림, 2006, pp.166~168, p 171, 215.

문제의식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바타이유가 주로 다루었던 개념인 '금기와 위반' '에로티즘의 절정' '죽음충동'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 한다.

II. 금기와 위반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더욱 욕망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면 안 되는 일로 다가올 때 더욱 매혹되고 하고 싶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 금기를 마침내 깨뜨렸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바타이유는 위반을 통하여 신성의 세계, 즉 연속성의 세계를 순간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¹⁰⁾ 그는 에로티즘을 인간 고유의 '내적 체험'으로 보았으며, 내적 체험의 절정에서 인간은 자아, 의식,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연속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에로티즘의 격렬한 감정적 상태는 종종 과도한 폭력과 공포, 살해, 전쟁, 혼란 등의 불안정한 결과로 나타나 이성적인 문명의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금기'는 이 불안정함을 억제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이렇게 에로티즘이 인간사회에서 금기가 되면서 에로티즘의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바타이유에게 에로티즘의 '초월성'은 위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이며, 여기서의 위반은 금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¹¹⁾

같은 맥락 안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¹²⁾는 <위반에 대한 서언>에서 금기를 위반하는 순간을 "밤중의 섬광 같은, 시간의 밑바닥에서, 밤이 부인하는 것에 질고 검은 존재를 주고, 내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송두리째 그것을 비추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자체의 생가 있는 빛, 자체의 격심하고 우뚝 솟은 특이성을 빛지고 있으며, 밤의 절대력이 각인되는 그 공간 안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어둠에 이름을 붙인 뒤에 침묵하는, 말하자면 그 어떤 것."¹³⁾이라고 표현하며 위반을 금기의 어둠에 휩싸인 진실에 한순간이나마 빛을 비추는 번개에 비유하고 있다. 금기를 범하는 위반을 통해서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에로티즘을 통한 연속성의 체험에 대한 열망은, 이것이 금기의 위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광기 어린 비정상적 행동들을 야기한다. <쾌락의 공범자들>은 등장하는 여섯 명의 인물들이 각자 자신만의 비밀스런 쾌락적 유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작품전반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도입부는 <쾌락의 공범자들>의 주인공인 '남자'가 포르노잡지를 보다가 흥분하여 자신의 장롱 안에 들어가 수음을 하던 중에 집배원의 방문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자 집배원은 그에게

10) 바타이유, 조르주, 『에로티즘』, 조한경역, 민음사, 1997, p.73.

11) 유기환, Ibid., pp.170~171.; 바타이유, 조르주, Ibid., 1997, p.41, pp.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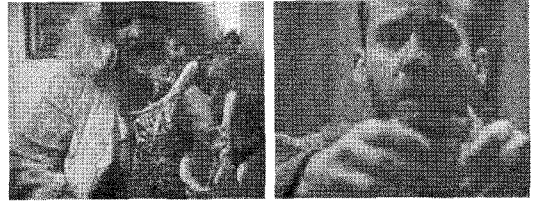
12)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많은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준 프랑스의 철학자. 다양한 사회적 기구에 대한 비판, 특히 정신의학, 의학, 감옥의 체계에 대한 비판과 성의 역사에 대한 그의 사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13) 푸코, 미셸, 『위반에 대한 서언』, 『미셸푸코의 문학비평』, 이규현역, 문학과 지성사, 1989, p.97.

14) 유기환, Ibid., p.215.

묘한 시선을 던지며 협박편지로 보이는 편지를 한 통 전달하는데, 이 편지에는 '일요일(v neděli)' 이라고 쓰여 있다. 이때 옆집에 사는 중년부인이 나타나 위협적인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바라본다. '남자'는 겁을 내며 허둥지둥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들어와 목요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한 후 무언가를 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남자'는 옆집의 중년부인에게 수탉을 가져가 도살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여기서 도살은 살해금기의 위반이자 희생제의를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바타이유는 희생제의를 살해의 금기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보았다. 인간은 폭력의 금기를 설정함으로써 자신 안의 본능적 동물성을 부정하는데, 희생제의를 통해 이 폭력, 살해의 금기를 인간 스스로 위반하면서 동물성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희생물은 죽기 전까지는 불연속적 개체성에 간헐 있으나, 죽음을 통해서 개별성은 사라지고 제의 집행자와 하나가 되어 존재의 연속성의 상태, 무한한 신성의 세계에, 절정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¹⁵⁾ 옆집부인은 잔인하게 닭의 목을 칼로 긁고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수탉을 보며 쾌락의 신음성을 흘리는데 여기서 그녀가 느끼는 쾌락은 바타이유가 말하고 있는 극단적인 쾌락의 절정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그녀는 흡사 마녀와 같이 묘사되며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 닭을 도살하는 옆집 부인과 닭의 피를 컵에 받고 있는 '남자'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닭의 피를 받아내는 '남자'의 모습은 이 작품의 주요한 인간관계인 옆집부인과 '남자'의 관계에서 누가 강자이고 약자 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남자'는 이런 관계를 전복 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희생물이 된 닭은 옆집부인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남자' 자신의 상징이다. 이 닭의 사체를 이용하여 남자는 옆집의 부인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남자'는 닭의 털을 다 뽑고는 죽은 닭으로 요리를 한다. 피는 고무풍선에 담고, 수탉의 잘려진 목은 벽에 못으로 박아 놓고는 그것을 본떠서 수탉 머리 모양의 종이가면을 만든다. 그리고 이 종이가면에 닭의 털을 하나씩 풀로 붙이고 색깔을 칠하고 눈동자를 집어 넣는 등 공들여 가면을 완성시킨다. 이 가면은 뒤에 '남자'가 부인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또한 이 닭의 도살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영화의 큰 그림, '남자'와 옆집의 부인이 결국은 희생제의를 제물이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옆집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 '남자'는 그녀의 방으로 침입해 들어간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보게 되는 것은 생리대의 피를 훑고 있는 검은 고양이이다. 옆집부인의 방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남자'의 행동은 그 자체도 충분히 위반적인 행동이나

15) 유기환, Ibid., pp.189~190.; 바타이유, 조르주, Ibid., 1997, p.98.

그가 들어가자마자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는 생리대의 월경혈을 핏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만큼 충격적이지는 않다. 피는 그 자체가 폭력의 상징이며, 출혈은 내적 폭력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월경의 피는 성행위나, 성행위에서 분비되는 체액을 상기시키기도 한다.¹⁶⁾ 선사시대처럼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피가 생명창조의 원천으로 숭배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문명의 발달 이후 월경의 피는 감추어야 하는 부끄러운 것으로 터부시되었다.¹⁷⁾ 이런 월경혈을 노출한다는 위반은 전복이며, 이 작품에 금기는 없다는 선언과도 같아 보인다.



<그림 2> '남자'의 시선에 드러난 옆집부인의 방안

카메라가 들여다본 부인의 방은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속옷과 옷가지들, 지저분하고 흐트러진 침대, 이곳에서 '남자'는 까만 우산을 잘라 부인의 재봉틀을 이용해 그에게 힘을 부여할 또 다른 도구인 날개옷을 만든다. 그리고 부인의 옷을 훔치던 중에 '남자'는 장롱 안에서 시체처럼 보이는 남자의 발을 보

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장롱안의 남자, 그는 부인에게 지배당하는 무기력한 '남자' 자신의 분신인 것이다.

<쾌락의 공범자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위반의 형태는 도둑질이다. '남자'는 옆집부인의 옷가지와 액세서리를 훔쳐서 그녀의 인형을 만들고 형사의 차를 훔쳐 타고 도시를 떠나 교외로 이동한다. 형사는 자신을 애무할 도구를 만들 재료를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인 그가 재료들을 구하는 방법은 도둑질이다. 형사가 훔치는 물건들은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이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절도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의 쾌락의 절정을 위해서는 훔친다는 행위가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가 훔치는 이 물건들은 훔친 물건이어야만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Ⅲ. 절정, 전복의 시간

바타이유는 위반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신성의 시간이자 축제의 시간이며, 공인된 일탈, 위반, 전복의 시간임을 강조한다. 평소에 금기이던 것이 허용되며, 성과 폭력이 범람하는 이런 극단의 위반은 궁극적으로 성행위를 능가하는 에로티즘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위반이 한계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에로티즘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⁸⁾ 여기서 보여주는 바타이유의 '위반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은 바흐친(Mikhail Bakhtin, 1895~1975)¹⁹⁾이 보여주는 카니발

16) 바타이유, 조르주, Ibid., p.58.

17)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미학』 한길사, 2004. p.76, p.82.

18) 유기환, Ibid., pp.197~198.

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다. 바흐친은 카니발을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든 것에서 해방됨” 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진리, 기존 질서에서 한시적으로 해방됨” 이라고 규정하며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의 억압적인 제약이나 제도, 관습, 신에 대한 외경 같은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한다. 카니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해방’의 정신이라는 것이다.²⁰⁾ 바타이유와 바흐친은 인간이 일탈, 위반, 전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억압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 해방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쾌락의 공범자들>의 여섯 명의 캐릭터들은 이런 정신적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탈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한 에로티즘의 절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에게 에로티즘의 절정의 순간, 또 다른 말로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축제이자 전복의 시간인 것이다.

마침내 일요일이 되어 여섯 명의 인물들은 각각 그 에로티즘의 절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남자’는 반듯하게 양복을 갖추어 입고 그 동안 준비했던 물건들을 트렁크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옆집 부인의 흙천 가발과 원피스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갖고 자신의 장롱 안으로 들어간다. ‘남자’가 장롱 안에서 나올 때 이 물건들은 신기하게도 옆집부인의 인형이 되어서 나온다. 장롱의 모티브는 <쾌락의 공범자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

자’가 수음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옆집 부인의 방에서 ‘남자’가 시체 같아 보이는 발 (실제로는 인형인 자신의 발)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옆집의 부인이 ‘남자’의 인형을 확대하는 어두운 장소와 그녀의 방을 연결하는 통로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연결은 후에 ‘남자’의 방의 장롱으로도 통한다. 여기서의 ‘장롱’은 마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마법적인 장소로 기능한다.

무언가에 쫓기듯 ‘남자’는 싸놓은 짐과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는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간다. 황량한 들산으로 차를 몰고 간 그는 계곡 안쪽의 폐허가 된 성으로 들어간다. 관객은 그가 가는 곳을 모르나 어딘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남자는 마침내 목표한 장소에 도착한다. ‘남자’는 부인의 인형을 의자에 묶어놓고는 검정 날개옷을 착용하고 닭의 가면을 쓴다. ‘남자’가 가면을 쓰는 모습은 흡사 전투에 앞서 투구를 쓰는 것처럼 비장함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가면까지 쓰고 끈으로 묶어놓은 후에야 부인의 인형과 대면할 수 있는 ‘남자’의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남자’에게 두려운 존재인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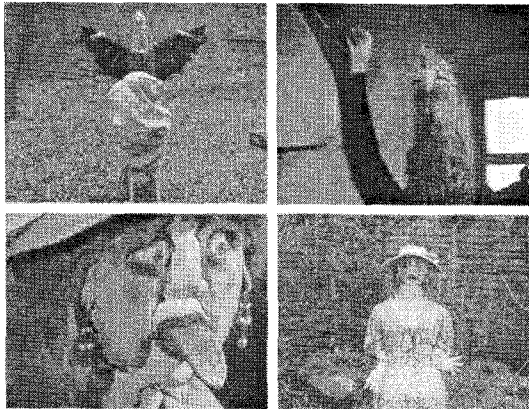
장클레 마르탱에 따르면 가면이 우리에게 세계와 연결되고 우주와 결합되는 기회를 주며, 대지의 힘들과 접촉함으로써 쾌락이 야기되는 그런 무아지경 속에 융합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²¹⁾ 가면을 착용함으로써 해서 ‘남자’는 ‘불연속적’인 한정

19) 러시아의 비평가이자 문예학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재발견된 바흐친의 독특한 사상은 근래의 문학비평이나 인문,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 임철규, 『눈의 역사 논의미학』 한길사, 2004, p85.

21) 마르탱, 장 클레, 『에로티시즘을 즐기기 위한 100가지 기본용어』, 김웅권 역, 동문선, 2004, p185.

된 존재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가면을 쓴 이후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된 '남자'는 부인의 인형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며 위협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초자연적인 '남자'의 움직임이 지금까지의 라이브액션과 차별화시켜 픽셀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쾌락의 공범자들>에서는 라이브액션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캐릭터들이 에로티즘의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그 순간의 특별함을 이질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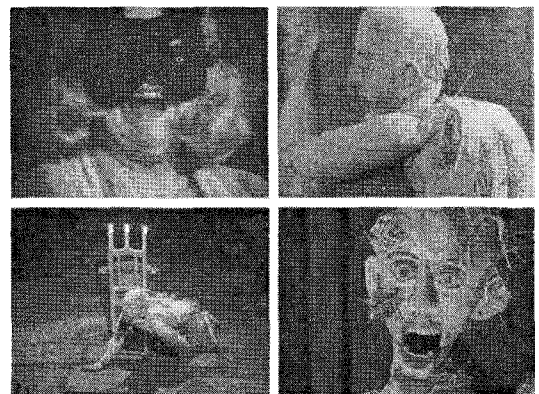


<그림 3> '닭의 가면을 쓰고 부인의 인형과 대면하는 '남자'

'남자'는 마침내 인형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두건을 벗기고 인형으로 존재하는 부인과 대면한다. 가면을 쓴 '남자'는 평소의 자신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간 동안 평소의 '남자'와 옆집의 부인의 관계는 전복된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남자'를 무서워하고 '남자'는 자신을 힘을 과시하며 큰 바위를 들어서 부인에게 계속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

하여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한다. '남자'는 심지어 날아다니기 까지 한다.

한편 동시에 옆집의 부인은 외출해서 버려진 교회건물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준비된 듯 의자 위에 물이 담긴 큰 대야가 놓여있고 의자 위에는 촛불이 세워져 있다. 부인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는 폐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의 장롱은 변화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채찍을 들고 가면을 쓴 채 장롱 안에서 나온 옆집의 부인은 장롱 안에 있던 짚으로 만든 인형을 폭력적으로 건물 구석으로 집어 던진다. 인형의 형상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가 채찍을 휘두르자 '남자'의 인형은 놀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옷을 벗고 나체가 된다. 나체가 된 '남자'의 인형은 두려움에 떨면서 부인에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녀의 신발을 입에 물고 바닥을 기어 다닌다. 이 장면은 '남자'가 부인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으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자가 부인을 두려워하며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남자'는 닭의 가면을 쓴 채로 옆집부인은 검정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의 인형을 괴롭히는 거울과 같은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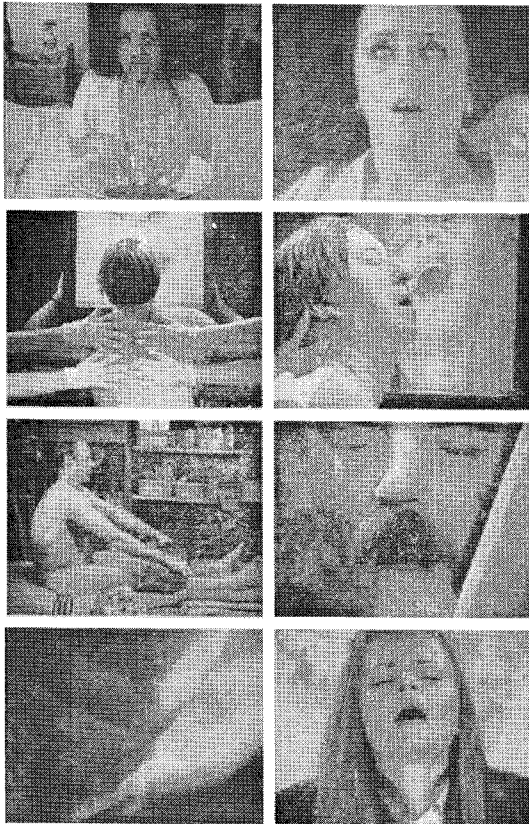


<그림 4> 옆집부인에게 학대당하는 '남자'의 인형

집배원은 자신의 방에서 빵으로 만든 공을 코와 양쪽 귀에 채워 넣고는 침대 위에서 황홀경에 빠져든다. 한참 후 황홀경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귀와 코에 채워 넣었던 빵으로 만든 공을 꺼내서 박스에 넣어 아나운서에게 배달한다. 남편의 외면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물고기를 꺼내 만지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빵으로 만든 공을 물고기에게 먹인다. 아나운서인 아내를 거부한 채 형사는 자신이 만든 도구들로 나체의 몸을 스스로 애무하면서 오르가즘에 빠져든다. 아나운서에 대

보며 여러 개의 기계손에 의해 애무 당하며 절정에 이른다. 그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TV 화면 속의 아나운서도 발가락을 물고기입에 넣은 채 동시에 절정에 이른다.

이들 여섯 명은 각각 자신만의 위반의 방법으로 황홀경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에로티즘의 걱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며 순간적으로나마 불연속적인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 연속성의 상태를 경험하며²²⁾ 자신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림 5> 위에서부터 집배원, 잡지판매상, 형사, 아나운서가 각각 에로티즘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

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잡지판매상은 마침내 만들어오던 기계가 완성되고 아나운서의 뉴스를

IV. 에로티즘,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면서도 죽지 않는 길이 있다면……. 에로티즘이 바로 그 길이다, 한계가 있을지언정 말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오르가즘의 순간을 “작은 죽음(pettie mort)”라고 부른다. 에로티즘은 ‘작은 죽음’ 즉 언젠가 다가올 진짜 죽음의 연습이요 맛보기다.²³⁾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순간이기는 하지만 에로티즘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연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타이유에게 에로티즘이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 말은 불연속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결국 연속성과 다시 만나게 되는 지점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에로티즘의 최종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며”,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한계로부터, 불연속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은 죽

22) 유기환, Ibid., p.170.

23) 유기환, Ibid., p147

음 충동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그림 6> 살해된 옆집부인의 인형 얼굴

<쾌락의 공범자들>에서는 두건의 살해행위가 일어난다. '남자'의 폭력성은 돌을 집어 던지고 인형의 목을 조르는 폭력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결국 부인의 인형에 머리에 돌을 던져 인형을 살해한다. 그리고 인형의 머리가 뚫개지는 살해의 순간 '남자'는 쾌감의 절정을 느끼며 짐승의 목소리로 울부짖는다. 그는 짓뭇개져 피가 흐르며 눈이 튀어나온 인형의 머리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기까지 한다. 한편 옆집의 부인은 '남자'의 인형을 대야의 물에 머리를 담가 익사시킨다. 이 장면에서 인형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남자의 인형은 애원하지만 그녀는 가차 없이 인형을 살해한다. 그녀는 인형의 죽음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롱 안으로 사라진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닭을 도살한 살해극기의 위반을 통한 희생제외의 반복이다. 죽음을 통해서 희생물은 자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제의 집행자와 하나가 되어 연속성의 상태, 무한한 신성의 세계에, 절정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바타이유 주장이다.²⁵⁾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위는 그저

인형 살해로만 끝나지 않는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옆집의 부인은 지붕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죽어있다. '남자'가 인형을 죽인 방식 그대로 옆집의 부인이 죽은 것이다. 실려 나가는 부인의 시체를 보며 '남자'는 은밀히 미소를 짓는다. 경찰이 조사 중인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벌인 일을 확인하던 그는 형사의 의미심장한 시선을 외면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남자'의 방안에는 옆집의 부인이 남자의 인형을 죽일 때의 상황과 똑같이 의자 위에 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있고 그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다. '남자'는 무엇에 홀린 듯 천천히 옷을 벗으며 비장한 표정을 짓고, 동시에 장롱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남자' 또한 곧 살해당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인 것이다.²⁶⁾

IV. 맺으며

본 연구에서는 <쾌락의 공범자들>을 죽음에 물든 성행위라는 관점에서 '에로티즘' 바라본 바타이유의 이론²⁷⁾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보았다. 앞서 본문에서 밝혔듯이 <쾌락의 공범자들>은 자유와 해방에 관한 영화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독특한 위반의 행동을 통해 에로티즘의 절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순간적으로나마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며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해방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24) 포스터, 할,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과현대 미술연구팀역, 아트북스, 2005, pp177~178.

25) 바타이유, 조르주, Ibid, p.98.

26) 바타이유, 조르주, Ibid, p.9.

27) 포스터, 할, Ibid, p177.

에로티즘을 통한 자유, 존재의 연속성의 도달이 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한 '해방'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성적 에너지의 분출은 프로이트의 승화의 개념(성적충동을 문명의 길로 유도하여 순화시키는 것)과 반대되는 문명화의 반대방향으로 향하여 대상과 주체가 모두 와해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²⁸⁾ 또한 이것은 인간의 폭력성과 파괴본능, 죽음충동과 같은 인간의 어두운 측면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춰 에로티즘을 해석한 바타이유 이론의 한계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작품세계를 이야기 할 때 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요소로 체코의 문화, 초현실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체코의 50년간의 정치적 트라우마를 꼽는다. 1934년 프라하 태생인 그는 자라면서 전쟁 전 민주체제, 나치 점령기, 전후 민주체제, 스탈린주의, 1968년 프라하의 봄, 다시 소련침공에 의한 지배체제 등을 포함한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정치체제와 그에 따른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며 성장하게 된다.²⁹⁾ 그가 겪어야 했던 체코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억압된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관찰은 슈반크마이에르에게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통찰을 갖게 했으며 그로 하여금 문명 비판적 성격이 강한, 또는 인간의 깊고 어두운 본성을 탐구하는 작품을 주로 만들게 했다. 피터 헤임즈(Peter Hames)에 따르면 체코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은 체코의 동시대 사람인 소설가 밀란 쿤데

라(Milan Kundera 1929~)³⁰⁾나 영화감독 밀로스 포만(Milos Forman 1932~)³¹⁾등과 같은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헤임즈는 비관론이나 냉소주의, 블랙 유머가 전통적인 체코문화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체코의 특수한 시대상황과 그에 따른 인간에 대한 경험이 이를 더욱 강화했다고 주장한다.³²⁾ 같은 맥락 안에서 <쾌락의 공범자들> 또한 억압된 상황에서의 인간의 광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성적충동과 죽음충동과 연관시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양,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연금술』, 한나래, 2001.
- 넬슨신, 한창완, 『애니메이션 용어사전』, 한울, 2002.
- 마르탱, 장 클레, 『에로티시즘을 즐기기 위한 100 가지 기본용어』, 김웅권 역, 동문선, 2004.
- 바타이유, 조르주, 『에로티즘』, 조한경역, 민음사, 1997.
- 오노 고세이 『상상에 숨을 불어넣다』, 김준양역, 나비장, 2008

28) 포스터, 할, Ibid., pp172~173.

29) Ed. Hames, Peter, Dark alchemy: the films of Jan Svankmajer, US and Canada, Greenwood Press, 1995, p2.

30) 체코출신의 저명한 소설가로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집필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불멸』 『이별』 『느림』 『향수』 등이 있다.

31) 체코 출신의 영화감독으로 할리우드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헤어>, <아마테우스>, <래리 플린트>, <고야의 유행> 등이 있다.

32) Ed. Hames, Peter, Ibid., p2.

유기환, 『조르주 바타이유: 저주의뭉 • 에로티즘』, 살림, 2006.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미학』 한길사, 2004.

이창제,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4.

장영란 외,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성찰』, 서광사, 1999.

포스터, 할,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과현대미술연구팀역, 아트북스, 2005

푸코, 미셸, 「위반에 대한 서언」, 『미셸푸코의 문학비평』, 이규현역, 문학과 지성사, 1989.

프로이트, 지그문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1997.

Ed. Hames, Peter, Dark alchemy: the films of

Jan Svankmajer, US and Canada, Greenwood Press, 1995.

Jackson, Wendy, "The Surrealist Conspirator: An Interview With Jan Svankmajer", Animation World Magazine, Issue 2.3, 1997. <<http://www.awn.com/mag/issue2.3/issue2.3pages/2.3jacksonsvankmajer.htm>>

Holden, Stephen, "Ordinary People Acting Out Extraordinary Fantasies", New York Times, August 20, 1997. <<http://movies.nytimes.com>>

ABSTRACT

Eroticism in Jan Svankmajer's *Conspirators of Pleasure*

Park, Jae-Yoon

This Study analyzes the Eroticism in Jan Svankmajer's "Conspirators of Pleasure" which is Svankmajer's third feature film. the movie describes how six ordinary Prague people(apartment-dwellers, a newscaster, a magazine vendor, and a postal delivery person) persue their own secret erotic fantasies. and Svankmajer self said this movie is actually a film about liberation, and about gaining a freedom. the poe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of liberation through investigate the erotic codes in "Conspirators of Pleasure" with Georges Bataille's Eroticism.

Key Word : Jan Svankmajer, *Conspirators of Pleasure*, Eroticism, Georges Bataille

논문 투고일: 7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09년 7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19일

박재윤

경민 대학교 미디어 콘텐츠과 강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 3동 위치

Tel : 011-474-4275

jaeyoon118@naver.com